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로페즈

1위 싸움 광주서 '龍虎상박'

〈SK〉 〈KIA〉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KIA 홈 3연승 노려 … 주말엔 두산과 잠실 대결

부상·불펜 관건 … 로페즈·홍건희 어깨에 기대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1위 고지를 노린다.

지난주 3승3패로 제자리 걸음을 한 KIA 타이거즈가 SK 와이번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 베어스와 대결을 벌인다.

지난주 프로야구는 1위부터 4위까지 2경기 차의 박빙의 순위싸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위 SK가 4승2패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삼성 역시 4승2패의 전적으로 4위에서 2위로 치고 올랐다. 공동 2위로 한 주를 시작했던 KIA와 LG는 각각 3승3패, 1승5패를 거두며 3·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KIA는 잡을 수 있었던 두 경기를 눈앞에서 놓치며 땅을 쳤다.

14일 한화 '괴물' 류현진과의 대결에서 나지완의 선제 3점포가 나왔지만 투수교체 실패로 3-12로 역전패를 당했다. 19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김선빈·김상훈의 홈런에도 불구하고 실책과 불펜진의 난조로 9회 3-4로 재역전을 허용하며 3연승을 놓쳤다.

LG가 하락세 속에 1위 싸움에서 한발 물러난 가운데 삼성과 KIA가 2경기차 내에서 1위 고지를 노리고 있다.

KIA는 주중 1위 SK를 직접 상대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는 3승5패로 KIA가 앞서 있지만 부상과 불펜이 갈 길 바쁜 호랑이 군단의 앞길을 막고 있다.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2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61	37	24	0	0.607	-	1승
2	삼성	64	36	26	2	0.581	1.5	1승
3	KIA	65	37	28	0	0.569	2.0	1패
4	LG	65	35	30	0	0.538	4.0	1패
5	롯데	63	28	32	3	0.467	8.5	1승
6	한화	66	29	36	1	0.446	10.0	1승
7	두산	63	26	35	2	0.426	11.0	1패
8	넥센	63	23	40	0	0.365	15.0	1패

좌완 양현종이 어깨 피로누적으로 18일 엔트리가 말소됐고, 19일 경기도중 병원으로 후송됐던 최희섭도 디스크 악화로 2~3주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펜의 엇박자도 계속되고 있다. 불펜을 효율적으로 꾸리지 못하면서 선발투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펜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불펜 전력의 핵심 손영민이 지난주 3경기에 등판해 10.22의 방어율로 2패를 안으며 부진했다. 특급 우완 김진우가 복귀했지만 3년11개월의 공백이 변수다.

로페즈와 홍건희의 어깨가 무겁다. 21일 글로버와 맞대결에 나서는 로페즈는 26일에도 선발로 나서는 등 이번 주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한다. 시범경기에서 두둑한 배짱으로 눈길을 끌었던 화순고 출신의 루키 홍건희도 양현종의 공백에 마운드 조커로 출격할 전망이다.

최희섭의 빈 자리에 투입될 내야수 김주형의 집중력도 절실하다. 올 시즌 4차례 결승타를 때려내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이기는 했지만 타격의 기복이 심하다. 19일 경기 1루수로 나서 판단 미스로 더블플레이를 놓치며 수비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5경기 연속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무등야구장은 본격적인 1위 싸움으로 흥행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안타

시즌 11번째 도루까지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안타를 터뜨리며 팀이 연장전에서 끝내기 승리를 거두는 데 힘을 보탰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5타수3안타를 때리고 시즌 11번째 도루도 성공했다.

나흘 만에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한 추신수는 타율을 0.237에서 0.244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회와 3회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는 불운을 맛봤다.

추신수는 6회 2사 후 기어코 우전 안타를 친 뒤 2-2로 맞선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우전 안타로 끝내기 찬스를 만들었다. 추신수는 연장 11회 1사 후 우전 안타로 다시 1루를 밟았고 이번에는 2루를 훔쳐 두 번째 끝내기 기회를 마련했다.

클리블랜드는 코드 펠프스의 끝내기 홈런으로 5-2로 이겼다. /연합뉴스

양용은이 20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 블루코스 18번 홀 그린에서 US오픈 우승자 로리 매킬로이와 악수하며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매킬로이 US오픈 우승 '골프 황제' 등극

양용은 아쉬운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제111회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골프 황제 탄생의 서막을 활짝 열어젖혔다.

매킬로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 블루코스(파71·7574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인 16언더파 268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월 열린 메이저대회 마스터스에서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던 매킬로이는 추락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능가하는 기록으로 US오픈 우승컵을 차지하며 새로운 황제에 오를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22세1개월의 나이인 매킬로이가 세운 우승 스코어 언더파는 2000년 페블비치 골프장에서 우즈가 적어낸 12언더파를 4타나 더 줄인 기록이다. 매킬로이와 챔피언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양용은(39·KB금융그룹)은 버디 퍼트가 번번이 홀을 외면해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공동 3위(6언더파 278타)에 머물렀다. 하지만 양용은은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찾아왔던 부진을 털어내고 역대 US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 양용은 다음으로는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과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김도훈(22·넥슨)이 공동 30위(2오버파 286타)로 좋은 성적을 남겼다. /연합뉴스

"어니 엘스 처럼 세계적인 골퍼 되겠다"

KLPGA 첫 우승 광주출신 이미림

골프연습장 운영 아버지 권유로 시작

"너무 기쁘고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골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출신의 여자 프로골퍼 이미림(21)이 지난 19일 생애 첫 KLPGA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미림은 19일 제주 엘리시안골프장(파72·6403야드)에서 열린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담아 8언더파 64타의 코스레코드를 작성하면서 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로 정규투어 첫 우승을 기록했다.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장기인 아이언샷이 빛을 발했다. 94.4%의 그린적중률로 보기를 기록한 1번 홀의 실수를 만회하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이미림은 "우승보다는 최선을 다해 상반기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이었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있게 경기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무등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골프를 시작한 이미림은 광주 문화중학교와 서울 대원외고를 거치면서 실력을 다진 뒤 지난 2008년에는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2009년 프로무대에 데뷔해 2부 투어를 뛰었고, 시드선발전을 거쳐 지난해부터 정규 투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러시앤캐시클래식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한 것이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이었다.

이미림은 "광주에서 그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신 아버지(이재성·57)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 이번 대회에서 캐디로 뛰어주신 외삼촌(권이주 프로), 남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미림은 1m73㎝ 신장을 기반으로 평균 260야드까지 뻗는 드라이버샷과 아이언샷이 장기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그는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자신 있는데, 아직도 퍼팅이 불안하다. 체력운동과 퍼팅을 보완해 한 달 뒤에 열리는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부드러운 폼에서 나오는 최강의 드라이버샷을 자랑하는 어니 엘스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미림이 19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에서 열린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정규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